

## ‘경북형 지역의사전형’으로 지방 살린다

## 본격 장마철 시작 ‘검은반점’ 번질라

도, 의대 신설 사업계획 제출  
안동대·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보 중점  
등록금·면허취득 등 정부 지원  
공공의료 확대·인프라 구축 기대



**경북 첫 마늘 경매 ‘복직’** 경북 첫 마늘 경매가 지난 1일 영천시 신녕면 신녕농협 마늘경매직접시장에서 농민들의 관심 속에 열리고 있다. 대서종 마늘을 취급하는 신녕농협 마늘경매직접시장은 이날 초매식을 시작으로 하루 경매량 1일 최대 400t, 올해 목표는 1만t으로 잡고 있다. 예약제를 통해 농가당 하루 300망(1망당 20kg)까지 물량이 제한되며 오는 8월 5일까지 주 6일(일요일 휴무) 경매를 진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에 건의한 의대 신설에 대한 계획을 이날 1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발전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의료의 공공책임 강화와 안동대·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병원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의료는 공공으로 가야 한다. 경북은 도립 3개의료원 외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의료원들이 있다. 이곳에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등 지역 필수 의료인력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안동대 국립의대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후속 조치로 안동대 국립의대(정원 100명)와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정원 50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도는 설립 필요성과 특화된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며 지역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경북형 지역의사전형’을 건의했다.

안동대 의대는 도청 신도시 내 대학 용지를 확보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포스텍 의과대학은 포스코의 민간 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하므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안동대는 경북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선발하고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해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는 세계 최초 과학 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한 의과대학원대학원 형태의 MD-PhD 8년 복합 학위 과정(2+4+2)으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며 스마트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전형인 ‘경북형 지역의사전형’을 함께 건의했다.

이 전형은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조건의 의대 입학전형이다. 입학생은 재학 기

간에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는 만큼 공공의료를 더 확대해야 한다.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토록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농기원, 평년보다 탄저병 발병 빨라  
노지재배 작물에 철저한 방제 당부  
예보시스템 활용 신속 대응 ‘은 힘’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으로 사과, 복숭아, 고추 등 노지재배 작물에 탄저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 위주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일 평균기온이 22-27℃의 조건에서 강우가 지속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어 장마기간 탄저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수년간 탄저병은 사과, 복숭아뿐 아니라 고추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에 발생해 과실을 부패시켜 수확량 감소에 가장 큰 피해를 줬으며 농업기술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탄저병 발병과율이 사과 16%, 복숭아 12%, 고추 6% 이상으로 농가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 5월의 온도는 평년과 비슷했으나 강수량이 40% 이상 많았던 영향으로 경북 내륙지역에서 평년보다 빠른 5월 하순에 처음으로 복숭아 어린 과실에서 탄저병 발생을 확인했다.

또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작물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예보에 의하면 지난달 20일에 복숭아 탄저병과 고추 탄저병 발생이 예보되기 시작해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사과, 복숭아, 고추 등 노지 작물을 대상으로 탄저병 예방용 살균제를 살포해야 하며 특히 3-4일 연속으로 비가 오는 경우 그친 후 즉시 방제를 하되 등록약제를 안전사용 지침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이미 탄저병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든 과실은 즉시 따내 경작지로부터 격리해 제거해야 한다.

조영숙 원장은 “여름철 비 오는 날이 많아서 강수량도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많아져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병해충 정밀 예찰과 예보시스템을 통한 병해충 발생 제공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대구시, 보건의료 분야 2위 최고 전문대학 ‘밀그림’

한달빛 글로벌보건연합대 MOU  
대구·광주·대전보건대 3개 교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구축

학30 선정에 초광역 연합모델 유형으로 신청한 △대구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등의 총장과 3개 지자체 대학 담당국장이 참석했다.

‘한달빛 글로벌보건연합대학’은 3개 보건대학교가 연합해 결성한 단일 거버넌스형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최우수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 분야 아시아 최

고의 전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달빛 글로벌보건연합대학은 2024 글로벌대학 예비경쟁 20개 학교 중 3개 지자체의 대학이 연합하는 초광역 연합모델로 대학혁신의 지평을 과감히 확대하고자 하는 글로벌대학 지정 사업의 취지와 밀접하게 맞아 아 있어 본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다

짐하고 향후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은 물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지정 사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국립대학을 선정해 5년간 최대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지난 4월 예비지정된 20곳이 오는 9월 본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이 선정된다.

김중찬 대학정책국장은 “글로벌대학 선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혁신전략으로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3개 지역의 보건대가 연합하는 한달빛 글로벌보건연합대학이 지역 성장과 대학의 동반 성장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김천

## 튜닝카, 드론산업의 거점도시

### 모빌리티산업중심도시 조성

- 튜닝안전기술원 조성
- 튜닝산업지원센터 조성
- 드론 실기시험장 조성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조성



# “250만 도민 위해 일하겠습니다”... 박성만 12대 후반기 도의장 선출

도의회, 5일까지 348회 임시회 부의장에 배진석·최병준 의원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7명 선임 박성만 의장 “소통·협치만큼 감시·견제라는 본연 역할 최선”



박성만 의장

배진석 제1부의장

최병준 제2부의장

경북도의회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4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1차 본회의 날인 2일 의장에 △박성만 의원이, 두 명의 부의장에는 제1부의장에 △배진석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최병준 의원이 선출됐다.

박성만 의장 당선인은 “이철우 도지사 임종석 도교육감의 감시자로 50명 도의원을 위해, 250만 도민을 위해 의

사봉을 두드리는 의장이 되겠다”라며 “도민을 위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250만 도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만 의장은 5년의 최다선 의원으로 지방자치, 지방시대의 역사를 현장에서 함께 한 인물이다. 때문에 ‘최연소’와 ‘최초’라는 타이틀이 늘 붙어다닌다. 그만큼 경북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경북이 한차원 더 도약하는 길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집행부는 손을 잡

고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잘못거리고 한다면 막아서고 허리춤을 잡고 못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소통과 협치만큼 감시와 견제를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박성만 의장의 당선을 계기로 경북도민과 언론 등 다양한 곳에서 이번 의장단, 특히 박 의장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역대 의장 중에서 가장 정치 경력이 많기도 하지만 할 말은 반드시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역시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이다.

배진석 부의장 당선인은 “당선시켜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일하는 부의장으로 열심히 하겠으며 의

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준 부의장 당선인도 “도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박성만 의장을 잘 따르고 쟁거 열심히 일하는 부의장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상임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 날인 오는 5일 선출하고 7명의 상임위 부위원장도 선임해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다.

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배한철 전반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제12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후반기에도 경북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수고해준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예천군의회 “지역 발전 위한 책임 다할 것”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총흔탑 참배로 일정 본격 돌입

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 부의장 박재길)는 지난 1일 남산 총흔탑 참배를 시작으로 제9대 군의회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예천군 의원 일동은 총흔탑에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열

정적인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

강영구 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예천군의회는 상반기에 이어서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소통하는 바른 의정’에 앞장선 군위군의회 개원 2주년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해 “초심 잃지 않고 군민 곁으로”

제9대 군위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의장 최규중, 부의장 김영숙)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일 개원 2주년을 맞이했다.

‘소통하는 바른 의정, 군민을 위한 군위군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년간 군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TK 신공항 추진과 대구 편입,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활동,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 제정 등 군민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왔다.

제9대 군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개원 2주년을 맞이해 최규중 의장은 “지난 2년간 군위군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남

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칠곡군의회, 제301회 정례회 마무리

칠곡군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6월 7일부터 운영한 제1차 정례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본심사를 진행, 다시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

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례회 일정을 소화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칠곡군 부서별 업무 실적과 456건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됐으며 군의회는 시정요구 33건과 건의사항 70건에 대해 개선 요구하는 한편 우수한 평가를 받은 2개 부서(새마을체육과, 건설과)를 선정해 시상했다.

심정보 의장은 “전반기 2년간 의정

활동 소감과 더불어 그동안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후반기 의회에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희망한다”면서 전반기 회기를 마쳤다.

군의회는 이로써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제302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을 협의해 이달 초 후반기 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기에 돌입한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 “울릉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김병욱 전 국회의원 장학금 기탁

지난 5월 29일 김병욱(사진) 前 국회의원(사)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45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의 기탁금은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울릉군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병욱 前 의원은 “지난 4년 간의 의

정활동 마무리하며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울릉의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 중증장애인 자립기회 확대 박선하 경북도의원, 입법토론회 개최

지난달 27일 경북도의회 주최로 ‘경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인 박선하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학계, 현장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경북도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관보

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전국 유일 경북에서만 12개소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명시되지 않아 경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선하 의원은 “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학계,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제언과 토론을 통해 올바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저출산 극복

## 경북형 새날봄

**조기퇴근 돌봄**

-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 근로자 임금 보전
-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학교 돌봄**

-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심야 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 24시 어린이집
- 아픈 아이 긴급 돌봄
-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온종일 완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 임종식 교육감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 현실화”

민선5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경북교육 6가지 핵심 키워드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구체화’  
학령인구 감소 위기 대처 ‘집중’

경북교육청은 2일 본청 오피스에서 민선5기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이 구체화돼 현실이 되고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여섯 가지의 경북교육 핵심 키워드를 밝혔다.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에서는 호국길 걷기와 독립운동길 걷기, 사이버독도학교로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체육교육으로 협동심과 배려, 소통을 배우도록 하며 특히 ‘미래열매(미래를 열어가는 매일 운동)’ 사업과 아침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해요, 감사운동’으로 개

인의 행복감을 증진하고 사람책을 대출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인 인생도서관을 개관해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며 경북형 인성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에서는 질문이 남치는 교실로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신(新) 퇴계 교사단, 공공한마당과 공리한마당, 경북

수업나눔축제로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실현하며 수능형 평가 문항 자체 개발 보급과 내년 3월 개교하는 온라인 공립학교로 교육력 향상과 공공육 신의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에서는 IB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10개의 체험기관과 7개 공공도서관, 대통령과 함께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국제교육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미국과 독일, 베트남 3개국 한국교육원에 인력을 파견해 다양한 교육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8교 직업계고등학교에 4개국 48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입학한 사례를 4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확대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능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 과테말라와 에티오피아 등 4개국의 R(재)셉 컴퓨터 나눔과 현지 교원 정보화 연수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 세계에 경북교육의 따뜻함을 실현해 나가며 학생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역

량을 키워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에서는 교권 보호 직통전화 1395 서비스와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이관, 피해 본 교원의 회복 지원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전담팀과 명상 자료 개발, 가정형 WEB센터를 개원해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학부모 교육을 위해 온라인학부모학교를 만들고 장애 학생 자립 생활 교육관 ‘꿈담채’와 외국인 가정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맞춤형 교육기관인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운영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며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화, 튀김 로봇 등의 도입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한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G-AI LAB), 정보교

육 플랫폼 디지털지식마루의 성과를 설명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연계 디지털·SW-AI 교육지구와 GBee 협업 시스템 구축,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학교 디지털 환경 구축과 조직 개편,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등에 힘쓰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력 지원,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준비, 지역 공교육 혁신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12개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의 표준”이라는 슬로건은 구체화돼 현실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은 성장할 것이며, 우리는 조화로울 것이며, 경북교육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길”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도 수산자원연구원, 버들치 우량종자 20만마리 유상 분양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위해  
자연수계 30만마리 방류 병행



확보와 종자생산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분양하는 ‘버들치’는 지난 4월 건강한 어미로부터 생산해 3개월간 정성껏 기른 4-5cm급 우량종자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올해 역대 최대 생산량인 50만마리 생산에 성공해

버들치 양식을 계획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유상 분양(20만마리)과 자연수계 방류(30만마리)를 동시에 추진한다.

센터에서는 버들치 분양을 희망하는 어가가 모집을 위해 도 누리집에 분양 계획과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공고한다.

분양받은 어가에서 버들치를 4-6개월 정도 추가로 사육하게 되면 상품 가능한 크기인 8-10cm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kg당 2만5000-3만5000원에 거래되는 경제성 어종으로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버들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며 하천 상류 또는 계곡의 깨끗한 물

에서 살아가는 1급수 지표 어종이다.

최근 경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탕, 조림, 튀김 등 요리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식용 시 뼈를 추릴 필요가 없고 살이 부드러워 통째로 섭취가 가능하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은 “버들치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4년간 시험 양식 연구에 매진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량 양식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양식어종 기술 개발 보급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소방, 여름철 ‘벌 쏘임 사고’ 주의해야!

벌집 제거 출동 7~9월 집중 발생  
야외활동 시에 밝은 옷·모자 착용



경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벌집 제거 및 벌 쏘임 사고 관련 119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만1401건이었다. 이 중 약 84.2%인 1만8019건이 7-9월 3개월간 집중됐으며 벌 쏘임 환자도 전체 1109명 중 약 79.8%인 885명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월의 기온은 평년(24℃-25.2℃)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오는 8월은 평년(24.6℃-25.6℃)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벌들의 활동이 지난해보다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은 벌초 작업, 성묘 등의 야외활동으로 다수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행이나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주변에 벌이 날아다니거나 땅속이나 나무가지 등으로 벌들의 출입이 확인되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

해서 살펴야 한다.

둘째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선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움직임을 작게 해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야외활동 시에는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면 더 안전하다.

넷째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을 쫓아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다섯째 벌에 쏘았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긁어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면 통증과 가려움증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道, 사회적경제 의미·가치 널리 알린 소통의 장 ‘성료’

기념행사서 성과공유·특강 펼쳐

경북도는 2일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새(·SE) 마음과 새(·SE) 뜻으로’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도민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종사자와 관계자들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기념식, 전시·체험 부스 운영,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성악 앙상블 라클라세의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와 관계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을 초청해 경북도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 소셜프렌차이저 히즈빈스 카페를 운영하는 이민복 향기내사람들 대표의 성공사례발표와 ‘한국경제의 미래 돌파구: 지방,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김종길 교수(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기념식에 앞선 부대행사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해 우수제품을 전시·소개하고 입욕제, 족욕제, 천연밀랍초 만들기 등 체험부스 운영과 대화용기 지참자에게 무료음료를 제공하는 생활 속 ESG 실천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를 경험할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사회적경제가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사업 발굴과 지원,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예천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신축공사, 안전관리 감독 '부실'

출입문쪽 100여대 주차공간을 자체 아적장으로 사용해 '눈살' 가림막·분리시설 등도 안 갖춰 인근 주민·선수 '이용 불편 호소' 레미콘 타설 중 철근 추락사고도



예천 종합운동장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차장을 공사자재 아적장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철근이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일 예천군에 따르면 경북 예천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예천군체육사업소가 관리 중이며 주차장은 인근 주민, 육상 선수가 이용 중이다. 출입문도 도로로 이용 중인 주민들과 차량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훈련센터를 건설 중인 업체는 출입문 쪽의 100여대 주차공간을 자체 아적장으로 사용해 주민과 운동선수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아적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은 별도

의 가림막이나 분리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라바콘'이라 불리는 안전장비로 프를 묶어 놓거나 안전망을 이용해 분리해 놓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체육사업소 측은 주민과 선수들, 공

사장 차량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 중인 정문에 '스타디움에서 행사 중'이라며 '외부차량 출입 금지' 현수막까지 게시한 상태다. 관리주체인 예천군체육사업소는 공

사업체에 주차장 정식 사용허가 절차와 안전 관리 대책 없이 '사업소 땅'이라는 이유로 구두로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사현장은 지난달 10일 레미콘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에서 부품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차 사고'로 기록돼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았다. 예천군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은 체육사업소 관할이라 공사업체와 업무협약이 된 상태이며 붐대 철근 추락 사고는 인명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안전교육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합운동장이 운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를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고 자

재 아적장은 안전을 위해 분리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교육훈련센터는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324㎡, 건축면적 1464㎡, 연면적 539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해 10월 말 착공해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태평양개발과 경북지역업체인 청암E&C(주)가 51대 49의 지분으로 공동도급해 공사중이다. 육상교육센터는 중·소형회의실, 다목적강당, 대표선수 숙소,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교육훈련시설이며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꿈나무 교육훈련 지원과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과학적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육상 지도자와 심판 교육, 외국선수·지도자 강습교육 등이 계획돼 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 대구 "장마 속 무더위에 세균성 감염병 극성"

3주 연속 환자 200~250명 대 고열·혈변 증상 시 병원 진료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장관감염증(11종)은 날씨가 따뜻해진 5월 말부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250명대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탈날 수 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러한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탈수가 심하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수액치로도 고려될 수 있으며 고열, 혈변, 중증 설사 등 증상이 심하면 병원 진료를 통해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 손씻기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후 변화로 지난 4월 26일부터 대구 시 낮 최고기온이 31도에 이르는 등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높은 온·습도의 영향으로 세균 증식으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세균성

이는 산발적 노로바이러스 발생과 특히 여름철 호발하는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환자 수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오염된 육류, 생닭, 달걀 껍데기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 시 6-72시간까지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캄필로박터균의 주요 원인은 조리가 불충분한 닭고기, 돼지고기, 오염된 생우유의 섭취 등이고 감염 후 2-7일(10일) 잠복기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열, 권태감이 설사 1-2일 전 먼저 나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관리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설사 환자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조치



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역학조사관·의료인력·검사요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10개반 192명)을 운영해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한수원 자체 개발 '환경피로감시시스템' 원전 운영 최초 적용... 안전성·신뢰 UP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최신 규제요건을 반영한 국산 환경피로감시시스템(NuFMS 2.0, Nuclear Fatigue Monitoring System 2.0)을 자체 개발,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피로감시시스템은 원전 주요 기기 및 배관에 누적된 피로(Fatigue) 손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발전소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체계다. 기존 피로감시시스템은 일반 공기 환경에서의 재료 특성을 적용해 설비를 평가했던 것을 최근 한수원이 냉각재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한 시스템을

개발하며 더 정확하게 기기 및 배관 상태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이를 지난 4월 신한울1호기에 최초로 적용했고, 계속운전 심사 중인 고리2호기 등을 포함해 향후 원전에 순차적으로 확대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이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향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도 적용해 SMR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 경주소방서, 남성의소대 연합회장에 임명장

조유현 경주소방서 서장은 1일 경주소방서 2층 서장실에서 박철환 남성의용소방대 신입연합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철환 신입 회장은 지난 2001년 12월 경주남성의용소방대 입대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대장으로 활동했다. 박 회장은 22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2016년 경주지진피해 복구 봉사활동,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

선' 피해복구 지원활동, 코로나19 방역 지원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철환 신입회장은 "22년간 의용소방대 활동 경험을 통해 경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성실히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유현 경주소방서장은 "남성의용소방대 신입회장으로 임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남성의용소방대를 잘 이끌어 주시고 지역의 안전



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13일부터 청소년 대상 비대면 교육 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특수학교 중학생 및 인구소멸지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서워요' 라는 제목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국립생태원과 국립호

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며 씨앗볼(ball), 팝업북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함께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휘영기자 jhy4430@hanmail.net

칠곡군 공고 제2024-707호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칠곡군수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사업명	비고
계			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669-3	전	7	칠곡종합운동장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668-6	전	1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개장사유: 칠곡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행
- 공고기간: 2024년 7월 3일 ~ 2024년 8월 27일
-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 개장 후 안치장소: 칠곡군 관내 공원묘지 납골당 안치
- 안치기간: 10년
- 신고 처: 칠곡군청 새마을체육과 체육시설팀 (☎054-979-5204)
- 신고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 기타사항: 위 사업지구 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같음하겠습니다.



# 경주 황리단길, 대기업 MZ 신입사원 연수 장소로 '인기몰이'

국내 완성차 기업, 지난해에만 17회 차 걸쳐 직원 2천여명 연수 식당 4곳·카페 3곳 등 협약으로 매출에 기여... 지역경제 '훈풍' 대구·충북 기업·동국대에서도 찾아

경주 황리단길에 MZ세대 신입사원들을 위한 연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한 완성차 기업이 지난 2022년부터 황리단길에서 신입 직원과 경력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단체교육의 한계를 넘어 신입사원들의 참여도와 배움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이색 연수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기업은 17회차에 걸쳐 직원 2000여명을 황리단길로 보냈다. 이는 1회차당 적게는 8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이 3주회에 한 번꼴로 황리단길을 찾은 셈이다. 연수 기간 8-10명씩 조를 나눠 황리단길 곳곳을 만나질 동안 돌려 각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색 연수를 실시했다.

이색 연수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의 이색 연수 덕분에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 기업은



직원 연수를 위해 황리단길 식당 4곳, 카페 3곳, 십원빵 가게 2곳, 분식집 1곳과 협약을 맺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견인했다. 경주시는 이 기업의 이색 연수로 적잖은 경제적 윤택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같은 이색 연수에 힘입어 다른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은 지난해부터 경주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팀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황리단길을 찾고 있다. 또 동국대 WISE 캠퍼스도 교직원·교수 회의를 황리단길 내 임접한 △향밀 △별채반 △교통쌈밥 등지에서 열면서 전통적인 회의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 황리단길은 단순한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소비 공간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경주시는 황리단길에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송호준 부시장, 장마철 재난 예방 '총력'

토함산 산사태 복구 상황 점검 실무자와 재해 관련 현장 논의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이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장마철 산사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토함산 현장 점검에 나섰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지난 1일 취임하자마자 관계 공무원들과 토함산 일대 산사태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석굴암 실무자와 산사태 예방을 위한 현장 논의도 가졌다.

송호준 부시장은 "긴급복구 작업이 완료된 지역도 주민대피체계를 한번 더 점검할 것"을 강조하면서 "복구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선제적 대비조치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안전지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유사시 대피 안내에 따라 지정된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주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토대로 토함산 주변 비상연락망, 대피소 등 대

피체계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시 지역 산사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와 주민 사전대피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달 2~5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한국지산기술협회 등과 합동으로 국립공원 토함산 지구 내 산사태 발생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AI로 맞춤형 건강관리

치매환자·독거노인에 안부전화 위기 징후 감지 시 관계센터 연결

경주시는 인공지능 상담사가 치매환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AI 안부전화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일 경주시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AI 안부전화 서비스'는 주 1-2회 일정 시간에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투약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간다.

대화에서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관계센터 상담사가 직접 대응한다는 점에서 고독사 등 치매 사각지대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서비스는 지난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되물어 정서적인 돌봄 제공뿐 아니라 안전 문자와 연계해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안내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까지며 안부전화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주낙영 시장 "가루쌀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직접 이앙기 탑승해 모내기 시연 가루쌀 재배농가 등 관계자 격려

주낙영 경주시장이 2일 가루쌀 모내기 현장을 찾아 모내기를 시연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 남산동, 동방동 일원 가루쌀 모내기 현장에 참관차 온 쌀 전업농 경주시연합회원 및 가루쌀 재배농가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가루쌀 모내기를 시연했다.

가루쌀은 늦은 이앙으로 모내기를 6월 하순부터 7월 초에 시작해 10월 중순 수확하는 방식으로 일반벼보다 생육기간이 20-30일 짧아 동계작물과 함께 안정적인 이모작 재배가 가능하다.

가루쌀은 가공용 벼로 개발된 쌀 종류로서 쌀알 구조가 성글고 물러 쌀가루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며 밀가루 대체용으로 사용이 가능



해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가루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면서 "일반 벼 대신 가루쌀 재

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쌀 생산량 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은 물론 더 나아가 가능 가소속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시교육청, ESG 경제 활성화 해커톤 '성료'

지역 중학교 1학년생 81명 참여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경주 황룡원 대연회장 (1F)에서 '2024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지역사회 ESG 경제 활성화 해커톤'을 개최했다.

중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중학교 1학년 학생 81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생태친화 미래지역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조대범 강사와 4명의 퍼실리테이터가 학생이 팀별로 협업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하는 것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16개 팀으로 나뉘어 ESG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소셜벤처 사례분석, 지역문제 발견, 창의적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및 팀별 워크숍,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토론, 경쟁자 분석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도출, IR 피칭자료 제작 및 패들렛 탑재, 팀별 발표 및 소감 발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발표 시간에는 각 팀이 준비한 피치

덱을 발표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가로부터 소감과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실제 미래지역사회 ESG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경주중학교 김모 학생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경주의 환경 문제와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특히 팀원들과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해커톤에서 경주 청소년들이 보여준 열정과 창의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이 탄소중립과 생태친화를 목표로 한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커톤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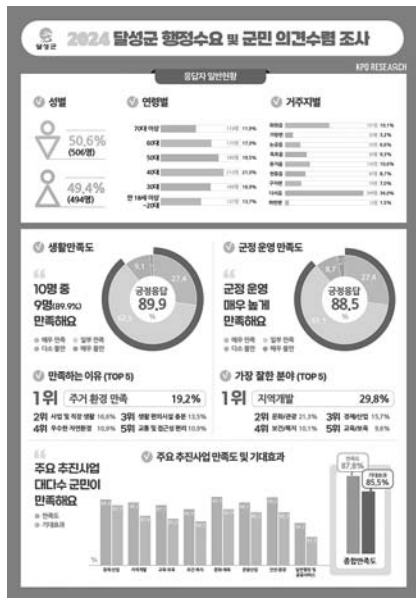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젊고 역동적인 달성' 위해 뚝민선8기 2년... 군민 87.8% "잘했다"

군민 1천명 대상 행정수요 조사 문화·체육 분야 89.3% 만족도 1위 안전·환경, 경제·산업, 관광 순 기대효과 경제·산업 제일 높아 균형 잡힌 정책 추진 성과 특목



달성군이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2024년 달성군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주민만족도, 정주의식, 생활여건 평가 그리고 달성군의 미래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60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군

민 1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달성군 추진사업 만족도 및 기대효

과와 균형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각 분야별 종합 만족도는 87.8%, 기대효과는 8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환경(89.2%) △경제·산업(88.8%) △관광산업(88.2%) △지역 개발(88.2%) △교육·보육(87.7%) △보건·복지(86.9%) △농·축산(85.8%) △일반행정(8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대부분의 분야에서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분야 간 편차가 크지 않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분야별 기대효과 역시 경제·산업이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 분야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군민의 89.9%가 달성군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10.8%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정주 이유로는 35.8%가 주거환경 및 사업·직장생활을 꼽았다.

이는 달성군의 생활 인프라와 경제 여건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출생아 1000명 이상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달성군이 다양한 보육·교육 정책을 펼친 결과임을 말해준다.

달성군의 자랑스러운 명소로는 △비슬산·참꽃군락지가 31.2%로 1위를 차지 △송해공원(27.5%) △디아크(10.9%) △사문진 주막촌·낙동강 생태탐방로(8.8%)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는 달성군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추

진한 사업 중에서는 △대구시 제2국가 산업단지 유치(23.8%)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빈 유치(22.7%) △24시간 응급실 개소(13.8%) △권역별 도서관 건립 등 교육시설 확충(11.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달성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9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지난 조사 대비 8.9%포인트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균형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8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군민 의견 반영도에 대해 80.6%가 긍정적으로 답해 소통 행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최재훈 군수는 "민선8기 지난 2년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높은 평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젊고 역동적인 달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사는 달성군이 KPO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18세 이상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장종찬기자jongchan2114@naver.com

## 대구신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팔 걷어'

농협은행 특별출연 지원 75억 추가 경영안정자금 최대 2.2% 이자 지원 법인기업 대상 지원 30% 별도 배정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상반기 210억원 규모로 시행한 농협은행 특별출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하반기에 75억원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협약보증은 상반기 210억원 규모로 시행된 후 소진이 임박해 농협은행의 출연에 따라 75억원의 협약보증(농협은행 출연금 5억원의 15배)을 하반기에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

농협은행 특별출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매출부진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시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특히 본 협약보증은 대구시경영안정자금과 연계 시 최대 2.2%



의 이자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높은 금융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기업에 대해 총 보증지원 규모의 30%를 별도 배정함으로써 지

역 대 법인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우 이사장은 "지역상생 금융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보증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ttg.co.kr)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문화·생태·관광 다잡은 '명품 하천' 조성

디아크 랜드마크 관광보행교 설치 흥मत광장·달성습지 연계 산책로도 2026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속도'

대구시는 2일 흥मत표 시장, 시의회 및 관련 기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시업의 일환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을 구상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 절차를 마치고 그간 본격 착공 준비를 해왔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이며 낙동강과 대구시 전역을 관통하는 금호강이 합수하면서 지리적·생태적 상징성을 보유한 디아크 일원에 주변 관광자원(달성습지, 대명유수지, 화원관광지)을 연계하고 단절성을 개선해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관광보행교는 길이는 428m, 폭은 5m이며 2개의 특화 공간인 아크 베이와 아크 테라스로 구성돼 있다.

아크 베이는 최대 폭 10m를 확장해 15m 공간에서 낙하분수를 내려보며 설수 있는 휴게공간과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크 테라스는 최대 폭 3.5m를 확장해 8.5m 공간에서 달성습지와 낙동강 금호강 합수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설치한 계단식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정시설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구상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 절차를 마치고 그간 본격 착공 준비를 해왔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금호강 전 구간에 걸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대구를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대구보건대, 최고위과정 수료식 '성황리'

14기 원우회, 발전기금 기부 '눈길'

대구보건대학교가 지난달 27일 웰니스문화산업최고위과정(이하 최고위과정) 14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을 비롯해 심인철 최고위과정 총동창회 회장, 14기 원우, 대학 관계

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14기 과정은 '선견지명'이라는 주제로 12주간 진행됐다. 강의는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한 안목과 장래를 예측하는 날카로운 견식을 갖추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14기 과정은 각 분야의 최고경영자 회원 57명이 수료했다.

행사는 1부 축하공연 'My heart will go on'과 2부 에필로그로 진행됐다.

2부는 김영숙 최고위과정 원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의 식사가 진행됐다. 이어 13기 손민호 원우회장의 축사와 14기 조현재 원우회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또 개근상, 공로패, 감사패 등의 시상도 진행됐으며 회원들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 14기 원우회

는 대구보건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남성희 총장은 "수료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수료생들이 지역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교통공 "시민 편의 힘 보탬 경산시에 감사"

대구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도시철도 이용편의를 위한 하양연장선 경산 구간 2개 역명을 부호(경일대호산대)역, 하양(대구기톨릭대)역으로 단축한 것에 대해 경산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구한의대병원역 역명 변경에 관해서는 추후 대구시의

결정에 따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경산시와 협의해 1호선 하양연장 구간의 완벽한 개통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눈길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 예천군, 명품교육·스포츠·관광 도시로 '도약' "어려운 경제 속 단 한번의 체납 없이"

영양군 김용훈·김재성씨 '경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24시 돌봄 출산부터 복지체계 구축 '촘촘히' 육상·양궁훈련센터 건립 속도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 박차 축제 활성화로 관광객 늘릴 것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민선8기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교육명품 도시, 스포츠·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미래형 농업정책과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특히 출산단계부터 복지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교육과 일자리까지 연결해 인구 유출을 막고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다양한 출산지원정책, 24시간 돌봄체

계 구축과 학력신장 특화사업, 대입맞춤형 진학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운영되는 국립경국대학교와 산학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 도시 예천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육상교육훈련센터 완공과 양궁훈련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e스포츠 국가대표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스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더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회포포와 삼강문화단지, 곤충생태원과 석송령, 예천박물관과 금당실 등 예천의 관광지와 원도심을 연결할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활축제, 곤충축제, 회포포 불꽃축제와

삼강나루터 축제 등 예천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더욱 활성화해 예천을 방문하는 유동인구를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농업혁신타운 조성 등 미래형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신도시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극대화해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친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껏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1일 '2024년 경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김용훈(영양양곡력발전공사 대표)과 김재성 영양군 홈마트 대표에게 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경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마다 1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각종 금융기관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오도창 군수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한 지방재정 증대에 이바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에 앞장서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



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 의성, 아동치과주치의 시범 사업... '어린이 구강건강 챙기기'

2027년 2월까지 시범 참여 초등 전 학년 대상 연차별 관리 서비스 초 1·4학년 아동 6개월마다 진료

의성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난 5월 10일 도내 군부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7년 2월까지 시범사업 참여 초등 전 학년 대상 연차별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들이 주치의 치과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구강 건강상태 평가 및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아동의 치과 예방진료를 받는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27일 의성군보건소, 경북도의성교육지원청, 경북도치과외과사회 의성지구분회 3개 기관이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

업무협약 체결 기관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지사, 의성초등학교 총 5개 기관에서 참석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아동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소 치과 공중보건과의사와 함께 영유아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 예방 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사회협의체 정기적 개최를 열고 지역 내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네

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 사업에 대해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자리매김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동 만들기 '앞장'

야간·휴일 보육 어린이집 운영

안동시는 이달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을 선정해 양육자의 여건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및 다양한 형태의 보육 수요에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은 용성동 안동하나어린이집과 신도청하늘채 어린이집 2개소다.

24시 시간제 보육은 24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 6개월~5세 이하(미취학아동)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장, 야근, 병원 입원 등으로 긴급보육이 필요할 경우 무료로 평일 24시, 주말·공휴

일 오후 6시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개소별 2개 반을 운영하며 1개 반 기준 3명(연령별 혼합보육)을 보육하고 이용 전 제공기관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보육이 필요할 경우는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권기창 시장은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춘 질 높은 보육시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발굴해 보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완성형 보육환경 조성에 집중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하루 빨리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 할인쿠폰 이벤트

영주시는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yjmarket.cyso.co.kr)'에서 여름을 맞아 '7월의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영주장날 출석체크 쿠폰' 이벤트는 영주장날 출석 누적 일수(7-20일)에 따라 최소 주문금액(1만5000원~3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5000원~1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5일마다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온라인 5일장' 기획전 및 이달 영주장날 신규회원 300명에게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영주장날 18주년 할인쿠폰'이 전역 소진되고 '영주장날 소문내기 이벤트'에 1000여명이 참여해 조기 종료되는 등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정교운 유통지원과장은 "영주장날에서 준비한 행사와 함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잘 지내시길 바란다"라며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쇼핑몰 운영으로 청정자연을 담은 우수한 영주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 상생 여건 조성에 '힘'

한국-베트남 노동포럼 개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 발표

봉화군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노동포럼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발표를 했다.

이번 포럼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베트남 기획투자부-주한베트남대

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난달 30일 공식 방한한 베트남 총리 팜민칭(Pham Minh Chinh)이 참석해 축사를 맡았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포럼 주제 중 하나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국내 지자체 중 봉화군이 발표를 맡아 실질적인 계절

근로자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날 발표는 많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남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MOU를 맺은 첫해 13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910명의 하남성 근로자

가 입국 및 근로했으며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농가와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농업경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법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 상주, 청년 꿈 실현되는 기회 도시로 '대변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선정  
상산로 7만3000㎡ 국공유지에  
문화센터·비즈니스타운 등 조성  
'콤팩트시티'로 도심 재구조화  
1천억 이상 경제유발효과 기대

2일 상주시가 '한국형 화이트존'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융복합적 도시 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도시의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가, 국·공유지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한지 등 신청지역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전국 56개 지역 중 상주시 포함 16개 지역(경북도 1개 지역)을 선도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관련 평가에서 상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매우 높고 사업 예정지 대부분 국·공유지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오는 2030년 KTX 상주역 개통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기업 유치 실적 등 상주시의 경제적 역량이 크게 성장한 점도 선정의 이유를 뒷받침했다.

▲도시혁신 프로젝트 '콤팩트시티' 본격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상주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콤팩트시티 개발'을 목표로 대대적인 도시 재구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상주시는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문제의 도전에 직면해 왔다.

이에 근시안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후 변화될 미래 상주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주시는 도시의 중심부를 혁



신적으로 재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 핵심이 바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콤팩트시티 개발'이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상주시 상산로 223 일원에서 진행되며 총면적은 약 7만3000㎡에 이른다.

콤팩트시티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복합문화센터, 공동주택, 비즈니스타운, 센트럴파크, 도로 등이 포함되며 민자를 포함해 약 507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상주 콤팩트시티, 이렇게 개발된다

상주시는 도심 활성화와 콤팩트시티 개발을 위해 각종 공공시설의 이전 후적인 국·공유지를 활용, 복합적이고 압축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의 취지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복합문화센터는 상주문화예술회관 이전 후지와 상주도서관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도서관, 북카페, 어린이집, 평생학습원, 문화센터, 전시장, 세미나실, 회의실, 팝업스토어,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양한 문

화·교육·업무 공간이 통합된 복합문화센터는 상주시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혜택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도 마련된다. SK머티리얼즈, 청리일반산업단지, 헌신동 일반산업단지, 농산물 종합물류단지와 향후 유치될 각종 기업·공공기관 근로자의 직주근접 배후주거지로 조성돼 도시 활력을 유지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비즈니스타운은 통합신청사와 연계한 상주시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랜드마크 성격의 비즈니스타워 및 민관 협업공간으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기업 본·지사, 청년창업지원센터, 기업형 숙박시설 및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비즈니스타운은 전시·회의·홍보 등의 역할수행 및 기업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시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지역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럴파크 조성도 이번 사업에 포함된다. 센트럴파크는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공원 및 광장으로 조성되며 지하 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곳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

상주시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단순히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상주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공간혁신구역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00억원 이상 경제유발효과, 26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콤팩트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위기에서 탈피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쟁력 있는 도시이자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기회의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풍부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상주시를 더욱 활기찬 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 '고소한 품미 일품' 김천호두막걸리 출시

백년주조서 제조... 인공 첨가물 無, 지역 쌀·누룩으로 발효

김천시는 높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호두 과육 비율이 약 48%로 국내외 어떤 호두보다 월등하고 산미정으로부터 입산물 지리표적시제(59호) 인증까지 받은 김천호두를 활용해 '김천호두막걸리' 생산하고 지난 1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김천호두막걸리'는 대덕면 농업인 회사법인 '백년주조' (대표 김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김천시 식품개발팀에서 국비를 확보해 지역 농산물 소비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과 지역 특화 식품개발 시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역 특산주이다. 또한 '김천호두막걸리' (750ml, 도수 6%)는 일반 막걸리와는 달리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했으며 발효 시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김천 쌀과 누룩으로만 발효해 숙성시킨 제품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산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전통주이다.

정현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한 생산 이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여지도서(輿地圖書)에도 기록된 오랜 역사를 가진 김천호두를 활용한 '김천호두막걸리'를 출시하게 돼 뜻깊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상주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

상주시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단순히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상주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공간혁신구역 개발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00억원 이상 경제유발효과, 26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콤팩트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위기에서 탈피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쟁력 있는 도시이자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기회의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풍부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상주시를 더욱 활기찬 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 성주 금수면, 안전한 여름나기 위해 '온 힘'

황희성 면장, 주민 안전확보 전념

성주군 금수면은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행락철 질서계도요원을 격려하며 금수강산면으로 명칭변경 이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가천변 일원을 점검하며 금수면장 1주년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료 정보 발령돼 휴일임에도 장마에 대비하고 행락철서 확립 등 주민 안전확보를 위해 행락지 현장을 향한던 것처럼 올해도 역시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쾌적한 행락지 운영을 당부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한편 금수면은 금수문화공원에서부터 사인암에 이르는 9.7km 구간이 강수욕장과 임시취사장을 설치하고 행락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취사 및 야영금지 안내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교통 및 주차관리 등 행락철서 전반에 걸친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다.

황희성 면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청정금수를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금수강산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서관·지역사회 함께하는 '구미 그림책 잔치' 열린다

시립중앙도서관, 6일 형곡공원  
동네서점·지역 작가 협업 행사

구미시가 오는 6일 시립중앙도서관과 형곡공원에서 구미 그림책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네서점, 지역작가, 자원활동가 등 지역의 독서기반 커뮤니티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 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민지 작가의 '문어묵탕',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올 줄이야', '벽 타는 아이', '코끼리 미용실', '나를

봐', '마법의 방방'을 주제로 작가 강연과 자기소개 드로잉 워크숍을 진행한다.

'문어 묵옥탕'을 실감 나게 재현한 도서관 문어묵탕을 오븐에 팔찌 만들기, 묵옥가방 꾸미기, 문어 낚시하기, 때밀이 공간·찜질방 체험 놀이를 진행한다.

△마법의 플립북 만들기 △나만의 헤어스타일을 꾸며보는 코끼리 미용실 △그림책 속 인형 만들기 △그림책 풍선아트 △마음치유 연극놀이 등 다양한 책놀이도 준비 중이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하늘에서 동아

줄이 내려올 줄이야'를 모티브로 로프플레이, 무지개 그네, 스윙 그네, 해먹 심터, 집라인 등 숲 놀이 체험과 그림책 속 장면들을 입체감 있게 구현한 '그림책이 살아있다' 기획전시 등 그림책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들도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문성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서점 대표가 기획과 연출을 담당하고 지역작가는 기획전시를, 다수의 자원 활동가들은 책 놀이를 진행한다.



드셨길 바라며 칠곡군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늘려 삶의 활력을 되찾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그림책과 접점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을 활용해 그림책 속 헤어 액세서리 만들기, 떡볶이유, 떡볶이아이스 크림 판매, 그림책 속 주인공이 등장하는 디지털 만들기 등 색다른 체험 PLAY 마켓도 운영한다.

이선임 관장은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구미 그림책 잔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책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창의적인 문화예술놀이 체험을 통해 꿈과 가능성을 맘껏 펼칠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 칠곡군보건소, 기억성장학교 수료식

40명 어르신 대상 인지강화 교육

칠곡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25일 3월부터 진행한 기억성장학교(기억아장치교실, 기억특별인지강화교실, 기억강종예방교실)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

기억성장학교 3개 교실에서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정상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인지강화 활동(운동, 수공예, 목공예, 요리 등)과 지역은행과 연계한 보이스피싱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프로그램 운영 기

간 중 함께한 어르신들의 추억을 기록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수고해 주신 어르신들께 수료증과 꽃화분을 수여했다. 또한 참여한 어르신들 다 함께 기타연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공연도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여자 김모씨는 "4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가족처럼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얻고 간다"라며 "집 밖으로 나와 활력을 얻는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얻은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뜻을 전했다.

고령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신청자 접수를 최근 완료하고 입주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와 호실 추첨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행복 임대주택은 총 9세대로(49.11㎡ 3세대, 42.51㎡ 6세대) 구성돼 있으며 냉방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 조건으로(보증금 88만원 별도) 최장 4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이러한 고령군의 적극적 노력과 임대주택 사전 개방을 통한 입주 대상자 편의를 도모한 결과 총 9가구(우선 공급 2가구, 일반 공급 7가구) 모집에 44명이 신청했으며 장애인,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

부 등의 우선공급은 3명, 일반공급은 41명이 지원해 6대 1에 근접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을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애정과 열망을 반영한 수치라 볼 수 있다.

특히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고령군 거주 청년(18~45세)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즉시 전입이 가능한 외지 청년으로까지 확대해 인근 지역 거주 청년들의 많은 문의와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 목표 실현에 대한 고령군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남철 군수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청년 행복 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청년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 ‘청정·청림·친절’ 울릉군, 알찬 하반기 다짐

민선8기 출범 2주년 정례조회  
청림 조직문화 확산 결의대회  
공무원 격려·군민 감사 인사



울릉군은 지난 1일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전반기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알찬 하반기 2년을 다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민선8기 전반기 성과 영상 상영에 이어 꽃다발 증정, 군수 표창, 에메랄드 울릉도 캠페인인 청림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림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했다.

에메랄드 울릉도 캠페인은 군이 지

난해 선포한 도시브랜드인 에메랄드 울릉도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정·청림·친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민 행동 실천 문화 운동으로 민선8기 하반기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한권 군수는 이날 정례 조회에서 훈시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에 매진해 온 공무원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동참해 준 군민에게도 감사

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민선8기가 출범하고 각종 현안 사업에 매진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온 지난 2년이 마치 이틀과도 같이 지나갔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회고했다.

끝으로 “지난 전반기 동안의 수많은 사업과 실적들은 앞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군정의 밑거름이고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돼 줄 것”이라며 “이제 다가올 하반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저와 혼연일체가 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 청년 니즈 반영 ‘경산청년지식놀이터’ 개소

도서관·국민체육관 7층 규모  
문화·교육·취미 등 공간 배치

경산시는 지난 1일 압량읍 대학로 363에 위치한 ‘경산청년지식놀이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박순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과 청년대표,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산청년지식놀이터의 첫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대학교 맨스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청년 인터뷰 영상, 기념사, 시설 투어,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경산청년지식놀이터는 한 건물에 도서관(1-4층)과 국민체육센터(5-7층)를 복합화하고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 청년 친화적으로 시설을 배치했다.

1층 어울림터는 책을 테마로 한 문화

소통 공간으로 북카페와 다목적홀로 구성돼 있고 2층 사람배움터는 사람도서관, 일반열람실, 디지털열람실과 그룹룸으로 이뤄져 있다.

3층 지식놀이터는 스터디카페와 컨설팅 열람실, 그룹룸으로 꾸며졌으며 4층 창의놀이터는 청년들의 감성을 반영한 북 캠핑존과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미디어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실 등이 배치됐다.

5층 건강배움터는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 공간, 힐링정원 등이 배치되고 6층 청년놀이터는 U-SPORTS ZONE으로 꾸며져 있고 7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됐다.

경산청년지식놀이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김하수 청도군수 “현장과 24시간 긴밀 소통, 초심 잃지 않겠다”

민선8기 취임 2주년 ‘민생행보’  
장애인 보호작업장 방문·위로  
환경관리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청도군은 김하수 군수가 지난 1일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해 군민과의 소통하는 현장 민생행보로 하반기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하수 군수는 먼저 청도를 월곡리에 소재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방문, 장애를 극복하며 삶의 의지와 기량을 다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당당히 기여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운영하는 곳인 환경

관리센터를 직접 찾아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고마움과 격려를 전했다. 아울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하수 군수는 “현장과 24시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군수가 되겠다”라며 “다시 한번 민선8기 2년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군민과

함께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자세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최기문 영천시장 “철마의 힘으로 힘차게 달려 나갈 것”

“철마의 힘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 영천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영천시는 2일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역 언론인을 초청해 지난 2년 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시정 운영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기문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영천시는 영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경제, 문화관광, 농업,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눈부신 성과라

거뒀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 기제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하이에크파크지구 개청 이래 최대규모 투자유치, 제2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68년 만에 해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보현산땀 흘림다리 개통, ‘영천 별야마늘’ 미국시장 판로 개척, 영천시-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속 배치 업무협약, 어르신 광역교통 무료이용 실시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힘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라

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연장과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연계한 금호역세권 개발, 110만평 규모 산업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 투자선도지구 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교통, 주력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보현산땀 권역에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캠핑 인프라와 은해사 등 영천9경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감성과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농업타운 등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한민고 등 우수고교 유치,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누구나 누리는 빈틈없는 복지를 위해 불편사항들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올해 1월 시민분들 모두가 영천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며 “철마의 힘을 동력 삼아 앞으로 오직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isy92920@hanmail.net

## 울진군, 수산자원·어촌 소득 증대 ‘집중’

울진군은 지난 1일 울진읍 언저리 대나리촌계 마을어장에서 어린 넙치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점차 고갈돼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 넙치 27만 마리를 매일 후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방류된 넙치는 1년 후 성어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넙치는 3-6월경 한번에 2000개를 산란하며 갑각류, 조개류, 멸치, 청어, 콩치 등 작은 물고기들이 주 먹이다.

군은 고갈되는 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어린 넙치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 어촌계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우량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 청도군가족센터, 반려가족 아카데미 진행

청도군가족센터는 지난 4월 27일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매월 1회씩 반려인 20가정을 대상으로 ‘명명! 냥냥! 반려가족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인 가정이 반려동물의 건강, 식습관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송근진 센터장은 “청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반려동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성숙한 반려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더블에이치플랜

## DHP

###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 경주 양남면 새마을부녀회, 행복 바자회

월성본부·주요지역 단체 등 참석 주민들이 직접 재능과 물품 기부

경주시 양남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달 28일 양남전통시장에서 '2024 행복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남전통시장에서 열린 바자회에는 양남면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양남 주민자치위원회, 월성본부 직원 및 양남면 주요지역 단체를 포함한 양남면민들이 재능과 물품 등을 기부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또한 김한성 본부장은 "양남면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여러단

체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양남면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으로 활기찬 양남면 분위기가 조성돼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며 "원자력본부 최인접 양남면을 위해 앞으로도 월성본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월성본부는 이번 행복 바자회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동행'에 맞춰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등 환경적·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 문경 학교 밖 청소년, 정보기술 활용 능력 UP

ITQ 자격증 시험 응시한 4명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달 8일 정보기술자격(ITQ) 아래한글 자격증 시험에 학교 밖 청소년 4명이 응시했으며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기 ITQ 아래한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한글 기초 교육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본 이론, 실습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과 ITQ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기술자격(ITQ)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진로 선택의 기회를 넓혀 청소년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는 시간

을 만들고자 했다.

송희영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목표 성취와 성공의 경험으로 자존감을 향상하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이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가는 데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고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4-556-3000)로 연락하면 다양한 지원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조현일 경산시장, 민생현장 속 시정 답 찾아

취임 2주년 첫 행보 '시선집중' 청년지식놀이터 개소식에 참석 새마을회와 취약층 접수리 봉사 민선8기 반환점 맞아 후반기에는 장기정책 과제 속도감있게 추진

조현일 경산시장이 '민생현장 속 시정'으로 시장 취임 2주년 첫 행보를 시작했다.

조현일 시장은 지난 1일 형식적인 기념식을 대신해 직원과 시민 위주의 간소한 정례회로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조희 후 윤희란 신임 부시장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방문해 시정 협조를 당부하고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방문, 주요성과 및 향후 시정 방향을 소개하는 등 언론인들과 시정 운영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후에는 청년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된 청년지식놀이터 개소식에 참석해 청년들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머물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한 청년 정책들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새마을회 회원들과 함께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인 및 장애 가정을 대



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접수리 활동 후 조 시장은 민선8기 하반기에는 총합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조 시장은 책상 앞 행정을

벗어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7-8월 두 달간 경제, 건설, 생활 현장 등에서 근로자 및 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생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조현일 시장은 "지난 2년간 적극적

인 참여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에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장기정책 과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스스로 빛나는 항성도시, 경산을 내실 있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영덕 영해초, 학생 심리·정서 돕는 행복 교실

사회기술훈련·집단 상담 실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사후관리

영덕군 영해초등학교는 지난 5월부터 경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학생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추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개 학년 대상 사회기술훈련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해 운영 중에 있다.

영해초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3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영유아기에 정상적인 발달 체계를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리·정서적 문제, 교우관계, 혼욕 등 다양한 문제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회기술훈련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이 사회기술훈련 및 집단 상담은 경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예산 지원



을 받아 지난해부터 이 학년의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 학부모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 및 컨설팅을 공동으로 설계해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심층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됐다.

또한 주 1회 집단 상담, 개인 상담을 병행해 왔고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종결 상담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정숙 교장은 "학교와 지역 연계기관이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온전히 선언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구미 소상공인 지원 '앞장' 11월까지 소상공인센터 통합교육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오는 11월까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소상공인 통합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은 구미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경쟁력과 실전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 방안 및 상권 입지 분석 △세무 △법률·노무 △지식재산권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는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브랜드·디자인 개선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통한 유망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상담·맞춤형 컨설팅·통합교육 등 경영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김창호 시장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익문 기자ub0104@hanmail.net

**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

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

**아시아나스포츠**  
대표 최 병 진

경주시 화랑로 47  
☎ 010-5588-9999

**스멜스라이크브레드**  
대표 황 숙 향

경주시 광종길 24 127호  
☎ 054-3523-1308



# 남미의 정열, 그 강렬한 울림... 대구시향 '정기연주회' 12일 연다

밤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브라질에서 온 클래식' 펼쳐져  
게하피시·빌라로부스 연주 참여  
민속곡에 서양음악 더해 '눈길' 피아니스트 정다슬 협연 하모니



이달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앞서 대구 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은 정열의 나라 브라질로 클래식 음악 여행을 떠난다.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되는 '제507회 정기연주회'는 브라질 대표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포르투알레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활동 중인 에반드로 마테가 객원 지휘한다.

'브라질에서 온 클래식'을 부제로 한 이날 공연에서는 마테의 지휘와 해석으로 브라질 작곡가 안토니우 카를루스 고메스(1836-1896년), 에이토르 빌라로부스(1887-1959년), 세자르 게하피시(1914-1993년)의 관현악곡을 선보이는 한편 피아니스트 정다슬이 리스트의 '죽음의 춤(토텐탄츠)'으로 강렬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무대는 게하피시의 관현악 모음곡 제2번 '페르남부카나'로 연다. 게하피시는 20세기 가장 다재다능한 브라질 음악가 중 한명으로 그만의 독창적 사운드와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은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매체, 영화 등 상업적 영역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이번 무대에서 만나게 될 관현악 모음곡 제2번 '페르남부카나'는 '마라카투', '카보클리노스 춤', '아보이아도', '프레보'까지 네 곡으로 이뤄져 있다. 각 곡은 대조적이면서 강렬한 매력을 지녔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

노악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위기와 짜임새 있는 곡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어 피아니스트 정다슬이 리스트가 1849년 완성한 '죽음의 춤'을 협연한다. 이 곡은 리스트가 이탈리아 여행 도중 피사의 묘지인 캄포산토에서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곡한 것으로 전해진다. 5개의 변주로 구성된 단약장이며 주요 선율은 그레고리오 성가 '분노의 날'을 바탕으로 했다. 삶을 투영한 깊이 있는 연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피아니스트 정다슬은 서울대 재학 중 도독해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이탈리아 이볼라 피아노 아카데미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수료했다.

스페인 하엔 국제 피아노 콩쿠르, 독일 아헨 아마데오 국제콩쿠르 등에서 수상하고 부소니 국제콩쿠르 파이널리스트, 프랑스 에피날 국제콩쿠르 메달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월간 객석 평론가가 선정한 '올해의 클래식 부문 솔로 연주자'로 꼽힌 그녀는 인천시향, 경기필하모니, 말레이시아필하모니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희대 등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휴식 후 2부의 시작은 19세기 브라질 작곡가 고메스의 오페라 '과라니' 서곡으로 연다.

1870년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된 '과라니'는 큰 성공을 거둬 고메스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 줬고 베르디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1560년대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식민지화하며 원주민과 마찰을 빚던 때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과라니족 추장 페리와 포르투갈 귀족의 딸 세실리아의 신분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선 사랑을 그린다.

마지막 곡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20세기 작곡가 빌라로부스의 '쇼루스 제6번'이다. '쇼루'는 브라질의 흑인음악이 유럽 음악, 아마존 원주민 문화 등과 융합되며 탄생한 민속 음악이다. '소리 내 우는', '흐느껴 우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녔는데 약간의 우울함이 느껴지는 애수와 열정이 공존한다.

객원지휘자로 초청받은 에반드로 마테는 "광활한 영토만큼이나 다양한 문화, 인종,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브라질은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융합되며 발전해 왔다. 이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브라질 음악'이다. 빌라로부스의 '쇼루스'는 브라질 민속 음악과 서양음악이 접목된 감각적인 작품이며 게하피시의 '페르남부카나'에서는 브라질 민속 선율에 세련된 화성과 화려한 리듬까지 더해져 브라질의 개성 뚜렷한 음악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OSPA)와 상 페드로 극장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인 에반드로 마테는 7세 때 트럼펫을 시작해 19세 때 OSPA 트럼펫 주자로 발탁됐다. OSPA 음악학교를 거쳐 미국 조지아 대학교, 프랑스 보르도 음악원,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연방대학교에서 수학

한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지휘자로 전향해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중국, 체코,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벨로타스에서 개최되는 SESC 국제 뮤직 페스티벌은 마테가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 페스티벌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음악 축제 중 하나로 교육적인 측면 외에도 개최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브라질의 프랑스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으로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대구시향 '제507회 정기연주회'는 일반 R석 3만원, S석 1만6000원, H석 1만원으로 대구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 인터파크(1661-2431)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취소는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모든 할인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공연 당일 티켓 수령 시 반드시 할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생(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 7 윤호세기연구소 유정 정윤숙의 수요문화칼럼 - 풍류의 정신 시군자



잡화도 권(卷) 부분.

### 명(明) 새물결 광달자방의 사군자(35)



산수인물도.

서위(徐渭, 1521-1593년)의 문인화를 통해서 자연을 관조(觀照)하는 그의 높은 경지를 엿볼 수 있다.

박식한 학문을 바탕에서의 양명학(陽明學) 사상과 유·불·도 삼교 및 노장사상(老莊思想)은 그의 예술세계



잡화도 권(卷) 부분.

와 문학작품에 다분히 담겨있다. 사군자의 난초(蘭草)와 화훼화에 서 광초서(狂草書)의 서법(書法) 운용을 엿볼 수 있다. 난초꽃의 화심(花心) 표현과 가느다란 잎줄기에서 광



목화도책 중 목란.

초서의 기운생동을 보여준다. 광초서를 운용하는 데 예술인의 천성과 인생철학이 어우러지면서 탈속한 문인의 높은 경지를 섭렵했다.

자연에 향한 애정 어린 심정을 담고



목화도책 중 목국.

일상에서 접하는 소박한 소재의 등장과 석류, 파초, 국화, 목란의 화초를 몰골법(沒骨法)과 점법(點法)의 유연한 수묵으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서위를 느껴 보자.

## 제2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27일 개막

어린이 CAT·인피니티 플라잉 등 5개 작품 8월 2일까지 무대 올라



김천시는 제2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를 오는 27일-8월 2일 7일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김천시립울곡도서관 울곡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고인범)에서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는 '연극,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국내·외 인기 작품 초청공연으로 진행한다.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여기가 집이다'를 비롯해 수십만명이 관람한 가족뮤지컬 '어린이 CAT'과 퍼포먼스 판타지극 '인피니티 플라잉', 제팬 갓 텔런트 준우승에 빛나는 '마스크드 쇼맨', 세계적 무용가 양리핑이 연출한 '서시의 꿈을 찾아서' 등 총 5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제22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의 관람료는 작품별 1만원이며 장애인, 문화소외지역(읍·면), 65세 이상 어르신, 단체(20인 이상)는 5000원이다. 또한 선착순 300명에 한해 5개 작품을 묶은 패

키지를 3만원에 판매한다.

예매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인터넷, 전화, 방문 예매로 가능하다. 인터넷 예매는 Yes24 티켓, 네이버 앱에서 가능하며 전화 예매는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054-439-8245, 054-435-8279)로 연락하면 된다.

방문 예매는 기간 중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 사무실(문당길 142)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 누리집(http://www.gitf.co.kr)을 확인하거나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추진위원회(054-435-8279)로 연락하면 된다.

금광수기자kgs5149@naver.com

**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재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

**(주)세영클린텍**  
대표 양창권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박회국 대표이사, 고향사랑 널리



의성군은 지난달 28일 박회국 동아 필름㈜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가 고향 사랑기부금 개인최고액인 500만원을 의성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동아필름㈜ 농업회사법인은 성주에 위치한 농업유틸리티 전문 생산업체로 하우스용 필름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전국에 납품하고 있다.

박회국 대표는 "고향사랑기부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의성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라며 "기부금을 통해 의성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청송, 도시재생주민대학 졸업식



청송군은 지난달 27일 '청송군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의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에는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졸업생·가족 및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청송군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은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의 의미 이해 및 지역발전 관련 토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시재생 현장설명, 품격·컬러·명화·문화예술에 대한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교육을 주제로 주민 주도형 활동과 교육을 수행했다.

조영국기자wdr1211@hanmail.net

인사

◇경주시 4급 승진·전보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윤병록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 봉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눈길'

총 7명에 군수 상장·시상금 우수사례는 누리집 등 홍보

봉화군은 지난 1일 적극적인 행정 업무 추진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 과정은 1차 심사(투표단 심사 및 온라인 국민 투표)와 2차 심사(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를 통해 진행됐으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 등 총 7명이 대상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례는 △최우수 봉화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도시교통과 김태선) △우수 청년 정책을 통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다(인구전략과 김의동) △우수



전국 유일 봉화군 약용버섯종균센터 구축사업 추진(농업기술과 강상진) △장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 시대, 농업의 대세가 되다(농

촌활력과 전호철) △장려 아이가 봉화의 미래! 봉화군 임신출산육아지원(건강관리과 박세주) △장려 손도 못대던 수해쓰레기, 발로 뛰며 처리

하다(녹색환경과 심경호) △장려 수해피해민의 아픔을 헤아리다, 봉화군 수해위로금 지급(주민복지과 김민정)이다.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봉화군민의 복지과 삶의 질의 향상이 기대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군수 상장 및 시상금이 부여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제작 및 누리집 게시를 통해 군민에게 홍보될 예정이다.

박회국 군수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행정 공직 분위기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취원기자jhy4430@hanmail.net

## 김진문 회장, 동국대 WISE에 '2천만원' 기부

김진문 신성약품(주) 회장이 지난달 29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 미래 인프라 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김진문 회장(경영 64학번)은 이번에 기부한 2000만원을 포함해 누적 기부금이 21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산 원정대(2기) 회장이기도 한 김진문 회장은 "수미산원정대의 WISE 캠퍼스 방문의 환대에 감사드리고 동국

대 WISE캠퍼스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완하 총장은 "동국을 사랑하시고 모교를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부를 해 주시는 회장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대학의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인프라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 김천 대덕면 지보협, 안전한 보금자리 만들기



김천시 대덕면은 지난달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동네 안전하세쥬' 사업을 실행했다.

2024년 김천복지재단 희망복지공동체 지원 사업에 선발돼 지난 4월부터 복지 안전 보안관이 된 주민들은 이날 대덕면 회전리에서 누수로 인해 싱크대가 썩어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정을 찾아 수도를 정비하고 깨끗한 싱

크대로 교체해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윤광혁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재능 기부로 더욱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손종일 명장은 "이른 아침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 안동 녹전면 새마을부녀회, 삼계탕 나눔 행사



안동시 녹전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일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력 회복과 이웃 간의 정 나눔을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새마을부녀회는 해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한우 모이기, 꽃길 조성, 각종 행사 시 식당 운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 삼

계탕을 정성껏 만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 60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전인남 부녀회장은 "이번 삼계탕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이웃의 온정을 느끼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오영수기자oms727@nate.com

동 정

정례석회 참석·지역현안 설명



주낙영 경주시장은 3일 오후 5시 20분 알천홀에서 열리는 이달 정례석회에 참석해 각종 지역현안들을 설명한다.

노인인권 현장교육 간담회 참석



권기창 안동시장은 3일 오후 1시 30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는 노인인권 현장교육 간담회에 참석한다.

서천 축제장 조성 구역 보고회 참석



박남서 영주시장은 3일 오후 3시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서천 축제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구역 보고회에 참석한다.

제23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23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한다.

농협중앙회 계절근로농 삼계탕 전달



박현국 봉화군수는 3일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농협중앙회 계절근로농가 삼계탕 전달식에 참석한다.

영양, 제빵기능사 자격증반 교육



영양군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한 제빵기능사 자격증반 이론 교육을 마치고 이달부터 농촌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받은 22명 중 10명이 합격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실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습 교육은 각 제빵 품목에 해당하는 맞춤형 제빵 방법과 기법 활용 등을 제공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편성되었다.

조용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부업 기술 교육 운영을 통해 농촌 여성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농촌 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기자tae66611@naver.com

###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 의관정제 선비의갓

'의관정제-선비의갓'은 배향인물(이연적)과 선비문화와 관련된 체험, 전시 등 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육산사원의 문화적, 건축적, 사회적 가치(OUV)를 확산하고 사원의 무거움(이피디)을 다가가기 쉽게 만들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기간/참가비/대상	장소	내용
의관정제	2024년 4월~10월 1박 2일 중 2회	육산사원	· 구과 시그널 · 육산총 동양 · 육산총 동양 · 육산총 동양
의관정제	2024년 4월~10월 10:00~17:00 매주 토, 일 (총 54회)	육산사원	· 구과 시그널 · 육산총 동양 · 육산총 동양

문의: 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육산문화원 후원: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울릉군은 지난달 29일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매주 금·토요일 주 2회 본천부경로당과 천부1리경로당 2곳에서 진행했다.

경로당 수업의 강사는 기존 울릉군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소속해 있는 지도자와 지난 3월에 진행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신규로 수료한 지도자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내용으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주산 교실, 공예교실,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움의 재미와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명 기자gst3000@naver.com

상주,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 현판식



상주시는 지난 1일 읍지어린이집에서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 현판식을 개최했다.

상주형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야간 및 휴일 등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제공 사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상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다.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읍지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일부터 △평일 오후 6시~오전 12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시간제 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내 거주 중인 6개월~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중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강영석 시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돌봄 정책의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으로 상주의 저출산 현상 해결을 해소하는 기틀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상주 도민행복대 총동창회 창단... 교류·협력 증진

졸업·재학생 50여명 참석  
멘토-멘티 행사·봉사활동



경북도민행복대학 상주캠퍼스 총동창회는 지난달 29일 고수부지 식당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동창회 창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창단식에 앞서 경북도민행복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북천공원에서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멘토-멘티 행사를 가졌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간을 보냈다.

창단식은 졸업생과 재학생 상호인사, 경과보고, 회장 추대장 수여, 임원진 임명장 수여, 선후배 간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도민과 지역

이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행복학습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지사가 총장을 맡고 각 시장·군수가 학장을 맡아 시작됐으며 상주캠퍼스는 지난 2021년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올해로 4기를

맞이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홍희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창단을 계기로 행복 학습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문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영석 시장은 "총동창회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동창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동문들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칠곡 지천면 이재춘씨 '사랑의 참외' 기증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직접 재배한 참외 94박스 전달

칠곡군은 지난달 27일 지천면 연화리에 거주하는 주민 이재춘씨로부터 참외 94박스(200만원 상당)를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주민 이재춘씨가 직접 재배한 참외 94박스(200만원 상당)로 이날 칠곡군으로 전달됐다.

참외를 기증한 이재춘씨는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재배한 참외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후원한다"라고 말했다.

칠곡군은 이번에 기증받은 참외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봉화로타리클럽, 사랑의 쌀 나눔 '훈훈'



봉화로타리클럽은 지난달 28일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 나눔한 사랑의 쌀은 제45·46대 로타리클럽회장단 이·취임식 행사 시 화환과 축의금 대신 어려운 이웃에 나누고자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

쌀 2000kg(500만원 상당)은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지역

내 복지기관들과 연계해 홀몸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전달된다.

서인교 회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준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영천 이길태 대표, 성금 200만원 기부 눈길



영천시 남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이길태 성원산업 대표가 지난 1일 남부동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채신동에서 성원산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길태 대표는 "수급자 및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로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부동 행복금고에 입금된 후 남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한 위기문제 해결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이정아 신임 의성 부군수 취임

의성군은 지난 1일 자로 경북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이정아(사진·57)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이 신임 의성 부군수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첫 일정으로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관기관에 들러 군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부군수는 4일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빠른 시일 내 주요 현안을 파악해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 출신인 이 부군수는 지난 1989년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유통담당, 방역담당 등을 거쳐 축산기술연구소장, 식품의약과장 등 부서장 경험이 풍부하고 이번에 여성 부이사관(3급) 부단체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이 부군수는 "의성군에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낮은 자세로 5만 군민과 소통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의성군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 취임

정재훈(사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제5대 경북행복재단에 취임한 정 대표이사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정 대표이사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장, 지방시대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최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최근 저출생과 전장을 선포한 경북도의 추진방향에 맞춰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 대표이사는 "지역균형발전, 저출생과의 전쟁, 보건복지 인프라 확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 4대 핵심 과제"라며 "폭넓은 사회복지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직운영과 열린 경영을 통해 경북도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MY UNIVERSE GYEONGSAN

부족하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박현국 봉화군수

#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



2

민선8기 박현국 2년... 군민 체감 군정 펼쳐 1조5천억 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국가정책화 추진 속도 1년 만 본예산 최초 군예산 5천억 시대 돌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A등급 달성 군 최초 소아청소년과 신설 의료 복지 견인 농어촌 버스 무료화·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



**포** 화군이 민선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2년의 국정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2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국 군수는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보며 1조5000억원 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국가정책화 추진,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봉화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은 시기였다고 자평했다.

◆민선8기 봉화군의 전반기 성과와 하반기 비전 봉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해 한국중부발전이 봉화에 양수발전소 추진사무소를 개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봉화군 최초로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관내 아이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어려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 버스 무료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

또한 농촌인력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업을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해 청년의 농업 분야 창업 유도를 위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스마트팜'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봉화 곳곳을 누비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 중앙부처, 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을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임기 시작 1년 만에 본예산 기준 최초 군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봉화군청 개청 이래 최대 국책사업 양수발전소 유치 봉화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에 건설되는 양수발전소는 500MW 규모로서 약 10년의 공사 기간 동안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균형 개청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 지역자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수발전소 건설(약 10년) 및 가동기간(약 60년) 동안 지방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직접 지원금 1200억원과 고용효과 6700여명,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 1조3000억원 등 막대한 직간접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채용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수발전소 주변에 홍보관을 비롯한 관광시설을 개발

해 분천산타마을,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K-베트남 밸리, 청량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구축해 관광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수발전소 유치 건설로 수량 조절이 가능해져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피해 예방, 농업용수 부족 해소, 산불진화용수 확보 등 날로 커져가는 일상생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농업의 미래 모델이 될 스마트팜 기반 구축 봉화군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고 미래형 스마트농업 구축과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위해 농업 체질 개선에 힘썼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스마트 농업 예비 창업농, 기존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 온실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96억원이 투입되는 봉화농업의 미래모델이 될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는 대상지 확정을 마치고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청년의 농업 분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도 실시해 봉화군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인력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맞은 편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키오스크(무인안내기)를 설치해 농기계 임대 예약, 출고, 결제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유일 공공형 버섯 배지센터인 '약용버섯종균센터' 개소식을 열고 경북 북부 지역의 버섯 산업을 이끌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매력 넘치는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봉화군은 봉성·준양·소천·명호를 연계하는 체류·체험형 관광벨트 조성으로 머무는 관광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4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뜨선시와 자매결연 체결, 정부 관계자와 베트남 정부에 지속적으로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을 한국-베트남 국가 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봉화의 관광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천 산타마을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시행해 산타하우스, 사계절 썰매장, 미니기차, 산타 전방대 등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또한 분천 산타마을 길링 콘텐츠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해 벽화, 정원 등 산타마을 전반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고 전방대와 대형 산타 조형물을 설치해 산타마을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있다.

폐교인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를 매입해 15실의 숙박 시설, 카페, 레스토랑을 갖춘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천혜의 트레킹 코스인 낙동강세평 하늘길을 재 정비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최대 수목원인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해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벗어나가 빠곡히 들어선 물아저수지 주변에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근 오전약수탕을 새롭게 정비해 힐링 산책코스로 개발하고 있다.

봉화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봉화농어축제는 '2024-2025년 경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 운영, 홍보마케팅을 위한 도비 9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새롭게 다양한 콘텐츠로 이달 27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친화도시 조성 국가유산 수리용 목재와 각종 부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유산청에 건의해 법전면에 건축 중인 '국가유산 수리 재료센터'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그 인근에 춘양목으로 목공예 체험을 하기 위한 '춘양목으로 만들어 가는 마을학교'를 건축 중이다. 이 두 곳이 완공되면 봉성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과 더불어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와 연계한 체류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성면 우곡리 일대 100ha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함께 '향기식물 치유단지', 휴양형 산림속박시설'을 함께 조성해 문수산자연휴양림과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공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 명호·재산·법전·준양·석포면에 기초생활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읍면에 노인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법전면 풍정리의 봉화요양원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확충, 전환, 소아·청소년의 빠른 진료를 위한 해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설, 석포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주민 복지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과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지도 88호선 선형개량과 지방도 915-918호선 확포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밖에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행복택시 운영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전원주택단지 및 작은정원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박현국 군수는 "지난 2년간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거둔 성과들을 바탕으로 민선8기 후반기에도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시작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산림특화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 등 취임 초에 구상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1 봉화군-한국중부발전, 양수발전소 유치 감사행사  
2 봉화해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소식



■ 의 학 칼 럼

### 남성 건강 위협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上)

김 종 찬  
웅진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비뇨의학과를 찾는 많은 남성 환자는 '전립선' 문제로 내원한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 일부를 만들어 분비한다. 그리고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어 배뇨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전립선 관련 질환으로는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을 들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 ■ 남성 배뇨장애의 주요 원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는 노화이다.

노화로 인해 전립선이 점차 커지고 요도를 압박하면 방광 출구 폐색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소변 배출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지연뇨, 배뇨 후 방광에 소변이 남는 느낌이 드는 잔뇨 등 각종 배뇨 불편감이 생긴다. 전립선비대가 지속되면 방광 출구 폐색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방광근이 점차 두꺼워지고 방광이 딱딱해진다.

그 결과로 방광 용적이 줄고 빈뇨, 급박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이 악화하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므로 배뇨 불편감이 있다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 ■ 전립선비대증의 검사 및 약물·수술 치료 방법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비뇨의학과에 내원하면 일반적으로 배뇨 증상과 관련한 설문, 소변·혈액 검사,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요속·잔뇨 검사 등을 받는다.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는 염증성 질환 등 배뇨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의 동반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PSA 검사는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별검사 목적으로 시행한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요속·잔뇨 검사는 소변 줄기의 상태, 소변량과 잔뇨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 치료가 먼저 이뤄진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요도의 압력과 긴장을 낮춰 배뇨 증상을 개선하며 빠른 효과를 보이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적어 가장 먼저 사용을 고려한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기립성저혈압이나 역행성 사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안드로젠 억제제는 디하이드로테스 토스테론(DHT)이라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해 전립선의 크기를 줄인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크기가 30~40cc 이상인 경우 사용을 권고한다. 이 약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성욕 감퇴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빈뇨, 야간뇨, 급박뇨 증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항콜린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전통적으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레이저수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아왔다.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은 요도에 내시경을 삽입해 커진 전립선을 내부에서 절제하는 수술로 수십년간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표준이었다. 이 방법은 수술 후 배뇨 증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만 역행성 사정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레이저수술은 최근 들어 대부분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적출술(HoLEP)을 시행한다. 경요도 절제술에 비해 전립선의 크기가 큰 환자의 조직 절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출혈 등 합병증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전립선비대증의 최신 치료법

최근에는 전립선 결찰술(슈로리프트), 전립선 수증기 치료(리쥘), 아쿠아블레이션 등 새로운 치료법이 도입되고 있다.

전립선 결찰술은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의 좌우를 묶어 전립선 요도를 확보하는 수술로 전신마취 없이 당일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치료는 전립선이 많이 크지 않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지만 통상적인 수술 방법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전립선 수증기 치료는 고온의 수증기를 가해 전립선 조직을 사멸해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치료법도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나 수술 후 노뇨관을 유지해야 하고 80cc 이상의 전립선에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아쿠아블레이션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고속 물줄기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로봇 보조 기술을 활용해 물줄기를 제어하고, 절제 영역을 정확히 조절해 효과적으로 전립선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러한 최신 수술법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2522호에 계속)

■ 사 설

### 자영업자 못 값은 빛 11조 '역대 최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 대출 원리금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차주들의 상황 부담도 커져 생계비와 원리금을 빼고 나면 남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을 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업무 보고서에 적힌 실제 연체액을 합산해 이 같은 결과를 제출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연체 기록이다. 지난해 말(8조4000억원) 이후 석 달 새 2조4000억원 불어났다.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1.30%에서 올해 3월 말 1.66%로 0.33%포인트(p) 크게 올랐다. 이 같은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3년 3월 말(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사업자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보다 2조7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이는 한은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이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사업자 대출을 더한 결과다. 가계대출 상환 부담은 다시 커졌다.

이민경 중소기업정책총괄실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실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고객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까지 동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 초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중앙은행(BOC)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연내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은 1973만 명이 모두 1852조8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9389만원씩 대출을 짊어진 셈이다.

직전 분기보다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6만 명(1979만 명→1973만 명), 5000억원(1853조 3000억 원→1852조 8000억 원) 줄었다. 다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뛰었다. 가계 대출자 평균 총부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로 추정됐다. DSR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가계 대출 평균 DSR은 지난 2022년 말 40.6%를 찍고 2023년 3분기 38.4%까지 떨어졌으나 같은해 말 38.5%로 다시 반등한 뒤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대출을 3개 이상 보유한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의 DSR은 64.8%로 석 달 새 2.2%p 올랐다. 금융 기관들은 보통 DSR이 70% 정도면 최소 생계비를 뺀 대부분의 소득을 원리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독 자 기 고

### 두류공원의 안전은 가로등 번호가 지킨다

장 두 기  
성서경찰서 범죄예방계장



대프리카의 위엄은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구의 더위를 장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치매축제는 지난 2013년 7월 18일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7월 3일 제12회를 맞이하면서 전국적인 축제가 됐고 대구를 상징하는 축제로 발전했다.

특히 치매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길 수 있는 힐

링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류공원이 시민들의 친근한 휴식공간이자 재충전 장소인 만큼 우리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

저는 지난 2015년 생활안전계장 근무 시 '안전한 공원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주제로 국토종주를 하며 이색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에게 두류공원내 위치정보 데이터셋 구축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두류3동파출소에서는 두류공원 내 가로등에 위치정보를 112포털에 입력해 신고자가 가로등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하면 112상황실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 후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했다. 쉽게 말해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가로등의 고유번호를 보고 신고를 하면 112포털에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경찰관이 그 장소에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두류3파출소는 지난 3월 두류공원 내 775개 가로등의 모든 위치정보를 수집해 112포털에 입력 완료했다.

이러한 위치정보 데이터셋 구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신고접수부터 순찰차 도착 시까지 시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다가오는 치매축제의 경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가로등의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한다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경영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 경상투데이배 전국아마추어 GOLF대회



대회장 김 효 철

2024/7월 29일(월)  
장소/경주신라CC



### 주최/주관/후원

- 주최 | 경상투데이
- 주관 | KTPGF 한국티칭프로 골프연맹
- 후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

### 참가접수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아마추어골퍼 160명 (40팀, 입금순)
- 경기방법: 신페리오방식 (조편성은 랜덤)
- 접수방법: KTPGF 한국티칭프로골프연맹
- 문의: M. 010-3501-6073
- 접수기간: 6월 17일(월)부터 접수마감시까지 선착순 마감
- 참가비: 1인 22만원(그린피·카트비 포함, 저녁식사제공, 캐디피, 그늘집은 참가자 본인 부담)

### 시상내역

메달리스트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우승(신페리오)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준우승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롱기스트상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니어리스트상	남·여 각 트로피 및 상품		
홀인원상	지정홀 최초 해당자		
포토제닉상	상품	다버디상	상품
베스트드레서상	상품	다보기상	상품
최고령자상	상품	다파상	상품
최연소자상	상품	양파상	상품
행운상	상품(현장추첨)		

※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경품과 행운권 추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02-0716-2732-61(예금주 백승만, KTPGF)  
※ 신청 마감 후 참가 취소시 참가비 환불 불가  
※ 우천시에도 대회 정상 진행

